

안전강화·부채감축·현장중심의 조직쇄신

- 본사 조직 및 인력 10% 감축, 지역본부 전환배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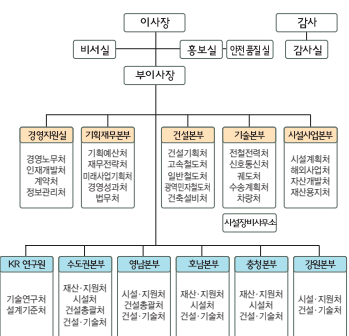
기획재무본부는 CEO 직속 안전실을 안전품질실로 확대하고 본사 인력의 10%를 지역본부로 전환 배치하는 내용으로 조직 개편을 6월 16일자로 시행했다.

* 지역본부 조직 강화: 12차 - 15차 (+3차, +25%)

- 이번 개편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이원화 된 안전과 품질관리 기능을 '안전품질실'로 통합하여 안전품질 기준정비, 현장점검, 교육, 훈련 등 사고에 방화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고복구 체계 구축
 - ② 5개 지역본부에 안전사업부를 설치하고 안전관리 전담인력 추가 배치
 - ③ 원가중심 경영과 적극적 부채감축을 위해 '재무전략처'를 신설하고 재무관리 컨트론타워 기능을 부여
 - ④ 본사 감축인력을 활용하여 시·설·재산 등 신사업, 수익성출 분야 확대하여 재무개선 노력 뒷받침
 - ⑤ 유리아사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미래사업기획처' 설치

한편 강 이사장은 지난 2월 18일 취임 이후, 안전강화, 부채감축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여 왔으며, 지난 4월 4일에는 전직원 워크숍을 통해 신성장, 부채감축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0 뉴 비전'을 마련하여 지난날 30일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5일에는 비전달성을 위한 부서별 목표를 구체화하여 삼삼이사 및 소속장들과 직무성과과제를 체결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목표달성을 위한 최적화된 조직과 인력구조가 갖춰짐에 따라 본격적인 업무성과 창출이 기대된다. 강 이사장은 "안전강화 및 현장중심 조직으로 공단을 쇄신하고, 잘못된 업무관행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외근은 짧고 일하게 '123캠페인' 전개

- 1일 2시간 집중근무로 3배의 업무효율 달성 -

기획재무본부는 불규칙한 회의, 타부서 잦은 전화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 업무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루 2시간을 집중근무시간대로 정하고, 직원별 고유 업무에 매진하게 하는 '123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123캠페인은 1일 2시간의 집중근무로 똑똑하게 일해 3배로 업무효율을 높인다는 취지로 집중근무시간대에는 ▲회의는 짧고 일하게, ▲업무협약은 메일로 ▲스마트폰은 OFF 등 일직원이 지켜야 할 수칙을 담았다. 집중근무시간대는 공단 일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설문조사를 실시해 오전 9시30분~11시30분까지 2시간을 선정했다.



123캠페인은 업무몰입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자제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일하고 불필요한 야근은 줄여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스마트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진되었다.

본부 관계자는 "집중근무시간제 도입은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짧은 시간에 높은 성과를 내고, 자신의 여가도 충분히 즐기는 워크스마트(Work Smart) 조직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철도사업도 '스마트'하게 관리!

-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앱(APP)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

건설본부(본부장 김계용)는 철도건설사업 진행과정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핸드폰 앱을 공공기관 최초로 개발 완료하고 원주 강릉 철도건설 사업에 시범적으로 적용, 운영한다고 밝혔다.

철도사업관리 앱은 사업정보, 공정현황은 물론, 예산현행과 각종 현안사항의 처리과정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현장 방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개발된 앱은 공단과 정부, 지자체간 상호 협업체계를 정착시킬 수 있어 정부 3.0 정책에도 부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협력업체도 현안사항에 대한 공단의 해결방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정보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정부 만들기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정환 고소철도차장은 "이번 철도건설관리 앱 개발로 정부 3.0정책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3개월간의 운영을 통하여 앱을 보완하고 효율도를 조사하여 타 사업의 적용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오리~수원 6공구 대체 시공사 선정 및 공사재계

- 공사재계 및 공사 체불금 해소 실마리 찾다 -

수도권본부(본부장 이수형)는 원 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의 경영악화로 '13년 말 공사가 중단되었던 '오리~수원 복선전철 제6공구 노반신설공사'의 대체 시공사로 극동건설이 선정되었다고 밝히며 12일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본부는 공사 중단에 따른 공사 체불금 해소 및 공사 뒷 마무리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올해 2월 공사이행 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에 보증시공을 청구하였으며 보증사에서 5회에 걸친 입찰을 거쳐 6월 3일 극동건설을 대체 시공사로 선정·통보해 왔다.

대체 시공사로 선정된 극동건설은 공사장 인근 도로복구 등 마무리 공사와 체불 대금 지급을 처리할 계획으로 공단에서는 극동건설을 적극 독려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조기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철도건설분야 'VE 업무 매뉴얼' 발간

- 고품질·저비용 철도건설을 위한 'VE교과서' 역할 기대 -

KR연구원(원장 이동훈)은 철도건설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창의적 발상으로 최적화된 설계, 공기단축 및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날 11월 철도건설분야 VE지침서인 'VE 업무 매뉴얼'을 발간했다.

* VE (Value Engineering, 가치 엔지니어링) : 체계화된 업무프로세스를 통하여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능정의와 다양한 분석 및 아이디어 창출 기법을 통하여 최적의 대안을 창출하는 선진 기법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은 그간 공단이 시행한 설계VE에서 고품질·저비용의 철도건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내부직원은 물론 협력사, 유관기관 등과 공유하기 위해 발간되었던 VE의 개념, 프로세스, 아이디어 창출 기법 등을 철도 특성에 맞게 작성해 실무자의 이해도를 쉽게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공단은 지난 2008년부터 VE전담조직을 운영하여 작년 한 해에만 약 2,566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VE추진과 설계기준 개선으로 철도산업의 체질개선에 함께 효율적인 성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방음벽 설치'로 철로변 인근 주민 생활환경 개선

- 2015년까지 경부선, 호남선, 충북선 13개소에 설치 -

총청본부(본부장 노병근)는 철로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경부선, 호남선, 충북선 운행선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으로, 2014년 6월 공사를 시작해, 2015년 11월까지 완공 예정이다.

방음벽 설치 공사에는 총4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전체 12개소에 2,281m의 방음벽을 설치한다.

- ▶ 방음벽 설치구간 * 방음벽 설치계획 현황 (별첨)
 - 경부선: 천안역~대신역 사이(7개소)
 - 호남선: 가수원역~강령역 사이(4개소)
 - 충북선: 주덕역~철도청역 사이(1개소)

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편을 해소하는 철도환경 정비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공사 시행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별	역구간	상하	위치	소재지	연장	비고
계					2,281.06m	
경부선	천안~소정리	하하	98km317.77	98km499.71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다대동 3-6	182.37m
경부선	천안~소정리	상상	98km817.25	98km999.69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38-11	182.50m
경부선	전야~사창	하하	129km583.96	129km775.96	충북 청원군 갈매면 상방리 388-6	192.00m
경부선	직지사~김천	하하	247km830.87	247km938.87	경북 김천시 대항면 덕덕4길 222	108.00m
경부선	직지사~김천	하하	252km290.00	252km390.00	경북 김천시 무곡동 902-9	100.00m
경부선	김천~대신	상상	259km393.04	259km649.51	경북 김천시 황금동 5-9	262.19m
경부선	김천~대신	하하	257km703.10	257km898.27	경북 김천시 지리동 418	196.00m
호남선	가수원역구내	상상	11km700	11km800	대전 서구 가수원동 547-43	100m
호남선	가수원역구내	하하	11km676	12m000	대전 서구 가수원동 547-43	124m
호남선	가수원역구내	하하	12m032	12m297	대전 서구 가수원동 553	265m
호남선	논산~제문	하하	51km995	52km034	충남 논산시 부황동 219-7	39m
호남선	논산~강령	하하	52km660	52km670	논산시 부황동 377-1 한일환경여	110m
충북선	주덕~일천	상상	78km220	78km640	충북 충주시 이원면 만덕리 207-9	420m

직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신천정거장 자진이전 이끌어내

수도권본부(본부장 이수형)는 소사~원시(신천정거장)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상가동 및 공장건물 등 8동에 대한 보상과정에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한 건의 부유점이 자진이전을 완료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본부는 사업실시계획 승인과 동시에 보상절차에 따라 협의보상을 추진하였으며 미 보상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의뢰해 수용재정에 따른 공탁을 완료하였으나 소유자들은 보상이가 저평가되는 이유로 이전을 강력하게 거부했다.

이에 본부는 토지 및 건물의 명도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유자들의 개별 면담 또한 실시했다. 본부 직원들은 소송비용의 부담 등이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소유자에게 수차례 설명하며 지속적인 협조를 구하였다. 그 결과 소유자(상가) 건물 시흥가구 등 상가 5동과 공장 3동들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갈등없이 자진이전을 시행하였고 본부는 철거를 완료할 수 있었다.

(수도권본부 이정범 기자)



영남본부 『대구지역실무협의회』시행

-공단·공사 상호간의 신뢰형성 및 협력관계 구축 -

영남본부(본부장 권영철)는 6월 17일 본부 6층 회의실에서 철도공사 대구본부장, 경주고속철도시설사무소장, 경주고속철도전기사무소장 등 공단·공사 양 기관의 실무위원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상반기 『대구지역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대구지역실무협의회』는 2011년 공사 대구본부와 영남권 철도건설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약 체결을 통해 반기별 1회 시행되고 있다.

영남권에는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상구간(L=26.4km, 연철선(L=3.7km)포함), 대구선(동대구~영천)복선전철(L=38.6km), 울산~포항 복선전철(L=76.5km), 포항~삼척 철도건설(L=44.0km) 4개 사업이 활발히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동대구역사의 운행선 변경횡수가 총 146회에 달해 양기관의 긴밀한 업무협약이 절실한 필요한 실정이다.

실무위원들은 철도건설 및 철도운영 전반에 걸쳐 22건의 상정안건에 대한 토론을 통해 개통일정 준수 및 우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단단히 구축하겠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또한 본부는 지난날 26일 철도건설사업 적기개통 및 고품질 철도건설을 위해 『부산지역실무협의회』도 진행했으며 공단·공사 간 합동점검 후 개최되는 안전·영업·시설·전기분과 협의회를 3분기에 개최해 공단의 전사적 품질·안전경영 확대에 기여해 나가고 있다.

(영남본부 김기훈 기자)

